

문제1.

아름다움

제시문들은 모두 아름다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그러나 아름다움을 위한 인간의 개입 여부와 이러한 개입의 표출에 대해서는 다른 입장을 지니고 있다.우선, 제시문 (가)와 제시문 (나),(다)는 아름다움을 위한 인간의 개입 여부로 구분된다.

제시문 (가)는 아름다움을 위해서라면 인간의 개입이 일어나선 안된다고 본다.(가)의 문인화가들은 곧고 올바른 매화보다 휘어지고 성긴 매화를 더 아름답다고 여긴다.‘나’는 이 문인화가들을 우둔하다고 비판한다.그들이 휘어지고 성긴 매화를 얻기 위해 매화상에게 인위적으로 잘 자라는 매화를 훼손시키라 했으며,이로 인해 몇몇 지방의 매화가 모두 병이 들었기 때문이다.

이를 보고 ‘나’는 매화들을 순리대로 살게 해주겠다고 다짐한다.이는 ‘나’가 인간의 개입보다는 자연의 순리를 따르는 것을 추구함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제시문 (나)와 (다)는 아름다움을 위해선 인간이 개입을 해야 한다고 본다.(나)의 무량수전은 조화,간결성,비례 등 때문에 우리 민족의 목조 건축물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여겨진다.이런 요소들을 얻기 위해서는 높이,굵기,곡선 등이 조절되어야 한다.또한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도 풍수사상에 의거한 조절이 필요하다.즉, 여러 요소가 조화되려면 인간의 개입이 있어야 된다.(다)에서의 르네상스 시대에도 물론 개입이 이루어졌다.이 때의 궁정 여성들에게는 우아함이 요구되었는데,이는 아무런 티도 안내는 것에서 나온다.여기서의 ‘아무런 티도 안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고 계산한 끝에서 나오는 것이고, 타인에 의해 구성되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아무런 티도 안냄’은 인위적으로 조작된 태도이다.

제시문 (나)와 제시문(다)는 인간의 개입이 이루어 진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개입의 표출 여부에는 서로 다른 점을 드러낸다.

(나)는 철저한 계획속에서 구성된 조화,간결성,비례 등을 건물에 그대로 적용시킴으로써 아름다움을 드러낸다.이는 인간의 개입을 밖으로 드러냄으로써 아름다움을 표출하는 것이다.

이와 달리,(다)의 아름다움을 위해서는 ‘꾸민 듯함’이 보이면 안된다.이 때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여성들은 타인을 계산에 둬으로서 나오는 행동을 하지만 결코 이것을 걸로 드러내지 않는다.즉 타인을 염두에 두고 행동하되 아름다움을 위해 이를 표출하지 않는 것이다.

문제2.

제시문 (다)의 다이아몬드 원석은 발굴될 때를 제외하고는 인간이 개입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대상이며 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인간의 개입이 가해진, 세공된 대상이다.이 두 다이아몬드는 보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달라진다.먼저 제시문 (가)의 입장에서 두 다이아몬드를 보면,다이아몬드 원석이 물방울 다이아몬드 보다 더 아름답다고 할 수 있다.

(가)의 ‘나’가 추구하는 점은 인간의 개입이 아니라 자연의 순리이다.이는 ‘나’가 매화상을 시켜 매화의 성장에 개입을 한 문인화가들을 비판한데에서 알 수 있다.물방울 다이아몬드는 세공을 거친 대상으로서 순리대로 존재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변형된 대상이다.이는 ‘나’가 추구하는 점과 어긋난다.이와 달리 다이아몬드 원석은 인간의 개입이 거의 없으므로 자연의 순리대로 존재한다고 볼 수 있다.그러므로 (가)의 관점에서 보면 원석이 더 아름답다고 느껴지는 것이다.

제시문 (다)의 관점에서 봐도 (가)와 같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더 아름답다고 볼 수 있다.(다)에서 추구하는 아름다움에는 ‘아무런 티도 안냄’이 필요하다.그러므로 만약 ‘꾸민 듯한’모습이 보인다면,그 대상의 아름다움은 크게 떨어질 것이다.이에 비해 다이아몬드 원석은 꾸밈 없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 (다)의 아름다움과 그 뜻을 같이 한다.

반면,제시문 (나)의 관점에서 두 다이아몬드를 보면 (가),(다)와는 다르게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원석보다 더 아름답게 느껴진다.(나)의 무량수전은 인간에 의해 계산되어 만들어진 대상이다.이 계산에 의해 나타난 조화,간결성,비례 등이 무량수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준다.그러므로 인간에 의해 세공된 물방울 다이아몬드가 다이아몬드 원석에 비해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위 관점들을 바탕으로 (가)의 논지를 보면 옳다고 볼 수 있다.(가)와 (다) 모두 세공되지 않은 다이아몬드 원석에 더 아름다움을 느낀다.물론 (나)의 무량수전을 예시로 들어 인간이 개입함으로써 아름다움이 더해질 수 있다는 반론이 제기될 수 있다.그러나 (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인위적으로 자연과 조화를 맞추려고 하다보면 언젠가는 결국 자연 자체에 손을 대게 될 것이다.이는 대상과 조화되는 자연의 존재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으며 나아가 조화가 불가능한 상태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